재배교실

대추묘목 재배기술연구

——裵 聖 漢 <한국생약협회 경상북도 지부장>

序論

본 연구는 필자가 한국생약협회에 종사하면서 대추가 생약에 소중한 생약재료로 사용되면서 사람의 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良質의 대추가 양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대추의 재배기술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비하여 본 연구에서 필자의 경험과 문헌적 토대를 기초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대추 묘목 번식법

1、실생법

좋은 대추를 착색이 아주 잘 되도록 나무에 매달린채 두면은 대추가 자연적으로 떨어질 정도로 아주 잘 익은 후에 과육을 제거하여 잘 말린뒤에 12월경에 종자를 아주 부드런운 모래에 섞어서 노지에 매장을 해두었다가 4월상순경에 파종을 한다. 그러나 좋은 대추는 거의 종자가 불충실하여 번식이 좀 어렵운 편이다.

2、산조인 실생접목법

산조인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은 좀 어려운 말이다. 즉 좋은 대추가 아니고 산에 있는 산대추라는 것이다. 흑 들대추라고 한다. 그런데 산조인 종류는 약 10여종이 된다. 크게 나누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매추, 중공에서 감통·감서·사천·운남에 많이 분포가 되어있는 원산조인 그리고 대만이나 버어마등 아열대 지방에서 나는 면산조인등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그중에서 산조인 실생접목법은 중공에서 생산되는 산조인은 우리나라 기온하고 비슷하니 제일 좋다.

중공에서 생산되는 산조인은 영상 50℃에서 영하 50℃까지 생존력도 강하고 자체병충해도 아주 강하다.

이 3지 산조인 중에 중공산 산조인이 대추실생접목으로 가장 우수한 품종이다.

①중공산조인이 한국에 들어온 동기와 재배법

1973년에 저가 한국생약협회 경산지부 소장을 할때 중공으로부터 종자를 수입하여 대추 실생묘로 쓸려고 한것이 아니고 한약으로 신경안정제로써 아주 좋은 약재이기 때문에 산조인을 생산하여 과육을 탈피한 다음 또 단단한 껍질을 벗겨서 약재를 채취할려고하니 너무나 일금비가 많이 들고 해서 약초 묘목 보급은 불가능했다. 다시 연구해서 산조인은 대추과 식물로 작은 대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조인은 우리나라 산에 있는 망개 열매와 비슷하며 크기도 비슷하다. 1978년 산조인을 다시 재연구하여 이것으로 종자를 파종하여 좋은 대추접목실생묘로 사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1979년 4월상순에 파종하여 1980년 4월상순 산조인 실생묘가 약 2자~3자 정도 자랐다. 그래서 품종이 좋은 대추나무가지를 잘라서 산조인 실생묘에 접을 하니 접율이 80%정도였다.

산조인 실생묘가 번식율과 병충해가 강해서 나무가 아주 잘 자라서 그해 가을에는 우수한 품종으로 자라 큰 대추가 수십개씩 달렸다. 그래서 당년에 대추가 열리고 하니 정말 신기했다.

그동안 산조인 종자로서는 수일품목도 아니고 중공 문제도 1980년도에 수교가 잘 해결되지 않아 중공 자체에서는 산조인 종자는 수출금지 품목이라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을 한약재 산조인에서 우량품종 대추나무 과정이 약 8년 동안 연구해서 산조인 실생접목법을 연구해 내었다.

3、산조인의 실생묘 재배법

산조인은 수분을 좋아하면서도 좀 애리한 식물이다. 너무 비가 많이오면 발아율이 30%감소하니 수분을 잘 조절해야 한다.

산조인은 영상 15℃에서 40℃사이에 발아가 되는데 그중에서 적당한 발아 온도는 영상 20℃~25℃가 가장 적당한 온도이다. 그래서 4월상순경이 발아율이 좋은 시기다.

노지재배나 비닐재배 방법은 말을 멀칠 정도로 만든 다음 2자망 위에 2개의 골을 약 10cm정도로 깊이 만든 다음 종자를 줄뿌림과 점파하는 방법이 있다.

산조인은 비닐재배를 점파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래서 10cm 이랑에 씨앗을 점파한 다음 2cm 두께로 흙을 덮어주면 8cm 이랑의 높이가 남는다. 그러면 비닐을 멀칠하면 나중에 종자가 발아되어도 비닐에 닿지 않는다.

산조인 발아는 약 12일에서 15일 정도면 발아가 된다. 금방 발아가 되면 10일 정도는 많이 크지 않고 거의 발아된 상태다. 발아후 10일까지는 약 4cm에서 6cm 정도이다.

그러니까 8cm 정도가 되면 비닐멀칠해도 지장이 없다.

어느 정도 발아 되면 비닐속에 산조인을 비닐구멍을 뚫려준다.

그냥 노지에 2자망을 만든 다음 비닐을 멀칠하여 놓고 15cm 간격으로 비닐에 구멍을 뚫어서 참깨심는 방법으로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조인은 새·꿩·쥐가 먹는다.

산조인은 콩과의 식물이기 때문에 파종후에도 조심하여야 한다.

그냥 구멍을 뚫어 심으면 비가 오면 단단해서 발아가 잘 되지 않고 날씨가 가물면 너무 건조해서 발아가 떨어진다.

노지에 노다지 2자망을 해서 뿌릴때는 발아율이 떨어지므로 점파를 하면 실패하기가 쉽다.

4、분주법

분주법이란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대추나무 뿌리에서 번식된 나무를 분주하는 것을 분주법 이라한다.

1)분주법의 단점

①분주는 산조인 실생접목보다 결실이 2년정도 차이난다.

②분주는 우리나라 전지역에 병충해가 심해서 원목 대추나무가 거의 병충해에 걸려있어 분주는 옮겨 심어도 병충해 잠입기간이 약 10년 그동안 언제 패목이 될지 모른다.

③분주는 신품종 대추가 거의 없고 옛날 재래종 대추이다.

④신품종 대추보다 가격면이 떨어진다.

2)분주법 장점

①분주는 원목 뿌리에서 분주를 하나 접목을 하지않고 바로 옮겨심는 점이 용이하다.

5、산조인 실생접목묘의 장점

①대추가 당년부터 많이 열고 속전 속결이다.

②대추 열매가 아주 크고 신품종으로 생산을 하다보니 가격면이 아주 좋다.

③병충해가 아주 적다.

④뿌리 세력이 좋으니까 나무가 잘 자란다.

〈다음호에 계속〉

◇대추(大棗)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듭시다

농어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자 뿌리이며,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나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가슴속에 언제나 살아 있는 마음의 고향은 바로 농어촌입니다.

보다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일이 나라사랑의 근본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농어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농어촌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농어촌은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농어촌도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도 소득과 생활환경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농어촌인력의 감소와 노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당 경지면적은 1·2ha 정도의 영세한 규모이며 농업선진국과 비교할 때 크게 미흡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밖으로부터 밀어닥치고 있는 수입개방의 거센 압력은 농어민들에게 농수산업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함께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농어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89년 4월부터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르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이후의 구체적 시책추진을 위해 올해 1월23일 종래의 농어촌발전대책을 보완 발전시켜 새로운 농어촌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영농구조의 개선이나 농어업기술향상을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향상사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어 농어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기좋은 농어촌은 이룩되어야 합니다

우리 농어촌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살기좋은 농어촌은 우리 모두가 이룩해야 할 과제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은 그간 국민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왔고, 산업화에 필요한 우수인력과 토지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은 근면하고 협동하는 건전한 국민정신의 뿌리로서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의 부작용을 덜어주는 커다란 역할도 해왔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농어촌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시될 것입니다.

정부와 농어민, 농어민단체가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간다면 살기좋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어촌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농정추진 방향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우리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어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살기좋은 농어촌을 건설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농수산업 구조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경지정리등 농업 생산기반을 조기에 정비하며, 기술개발, 농업기계화등을 통해 농업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농어촌을 전문적으로 지키는 전업농을 육성하고 영농규모의 확대와 시설현대화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4H회원, 농고졸업생 등이 농어민 후계자를 거쳐 전업농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나 자금,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종래의 개별 분산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생산기반 정비와 농업기계화, 유통시설 설치 등을 농가와 주생산단지에 일괄 지원하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호당 1·2ha 수준인 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지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현재 연간 2천5백억원 수준에서 앞으로 대폭 늘여나가도록 하고, 은퇴 또는 이농하는 농가의 소유농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입하여 자경농민에게 장기정리(연리 5%, 20년상환)로 매도하여 영농규모를 늘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입니다

농수산물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낙후되어 있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쌀, 보리 등 주요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수매를 계속하고, 소, 돼지에 대해서는 가격안정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생산출하조절기능을 확대하여, 생산·출하안정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가격을 보장하며, 대상 품목도 현재의 마늘, 양파에서 타품목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영농기계화

정부는 아직도 취약한 상태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을 조기에 완비해서 생산성이 높고 기계화가 가능한 우량 농지를 만드는 한편, 영농기계화를 적극 추진해서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생산기반조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경지정리, 배수개선등 생산기반이 조기에 완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밭에 대한 용수개발과 포장정비사업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업농을 육성하고 영농규모 확대

벼농사, 과수, 화훼, 채소, 축산 등 각 분야별로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키는 전업농을 육성하고 영농규모의 확대와 시설현대화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농림수산부문 예산증가추이

(단위 : %)

구 분	84~87년	88~91년
국가전체예산 연평균 증가율	11.5	15.7
농림수산부문 예산증가율	16.9	19.9
국가전체예산중 농림수산부문 예산비중	8.4	9.6

5月20日字 本報는 本會 事情으로 休刊하였음을 諒知하시기 바랍니다.